



북한산(北漢山)이

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

고고한 정신적 경지

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. 반복적 어구

⇒ 겨울을 기다려야 알 수 있는 고고함

고고한 존재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해주는 시기

밤사이 눈이 내린,

그것도 백운대(白雲臺)나 인수봉(仁壽峰)같은

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

열은 눈에 뒤덮인 산

가볍게 눈을 쓰고

원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있는,

고고함의 속성, 눈 덮인 산의 모습, 탈속적 이미지

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.

⇒ 겨울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는 고고함

고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

신록이나 단풍,

탈속적인 북한산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

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,

눈이라도 원 산은 뒤덮는 적설(積雪)로는 드러나지 않는,

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,

사소한 잘못, 외부 원인, 세속적 유혹

그 고고(孤高)한 높이를 회복하려면

화자가 지향하는 삶

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

고고한 정신적 경지의 존재



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

고고함이 드러나는 때

기다려야만 한다.

⇒ 원 산을 뒤덮는 눈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고고

갈 래 : 자유시, 서정시

성 격 : 탈속적

특 징 : ① 동일 구문의 반복을 통한 시적 화자의 의지 강조
② 점층적 방식을 통한 구체화
③ 단정적 어조를 사용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.

주 제 : 고고한 세계에 대한 열망
해 설

화자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정신적으로 고고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. '기다려야만 한다'가 반복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연을 나누면 1연, 2연~3연, 4연~6연으로 나눌 수 있다. 점층적으로 시상을 상세화시키고 있다. '북한산'은 정신적 기개를 상징한다. 정신적 기개의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겨울을 기다려야 한다. '눈'이라는 시련을 당해보아야 그 고고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러한 겨울과 눈의 고통을 인내해야지 고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. 또 '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'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고고함은 세속적인 것에서 쉽게 변질할 수 있으니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. '장밋빛 햇살'은 세속적인 유혹이라고 볼 수 있다.